

62. 불만족 Dissatisfaction

빌(Bill)과 베브(Bev)는 해외 선교의 첫 4년 임기를 마쳤을 때 다소 불만족스러웠다.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선교사로서 섬긴 일에 대해 둘 중 누구도 큰 만족이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직도 서로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결혼생활에 대해 둘 다 실망하고 있었고, 두 사람 다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고 있었지만 선교사가 되기 전에 부모로서 가졌던 흥분은 거의 없었다. 사실 그들은 선교사로서 섬기기 전에 가졌던 선교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어 있었다.

그들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오해했나? 선교지나 선교단체를 바꿔야 했을까? 그냥 집에 있으면서 선교사 감소 통계의 일부가 되어야 하나? 마침내 그들은 불만족과 만족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What does the Bible say?

놀랍게도, “불만족(dissatisfaction)”이라는 단어는 심지어 성경에 있지 않았다. 적어도 그들이 읽고 있는 성경 번역본에는. 만족에 관한 구절은 많이 찾을 수 있었지만 그 대부분이 구약에 있었다. 그 중 몇 구절, 특히 시편과 전도서에 있는 구절은 적절한 듯 보였다.

다시 한번 놀랍게도, 신약에서는 만족한 상태에 대한 구절이 별로 없었고 있는 것들도 거의 먹고 배부른 것에 관한 것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겪고 있는 일반적인 불만족에 대한 혼돈을 해결해주지 못했고 그들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선교사 연구에서 무엇을 발견했는가? What has missionary research found?

선교사들이 겪는 불만족에 관한 연구는 거의 없고 연구가 된 것들은 일반적인 불만족에 관한 것이기 보다는 결혼에 관한 것이었다. 그러나, 두 개의 훌륭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첫째로, 크리스토퍼 로식(Christopher Rosik)과 젤나 펜직(Jelna Pandzic)은 결혼한 부부가 몇 년에 걸쳐 선교사로 섬긴 후에 생기는 결혼 생활의 만족도 변화에 대해 궁금했다. 선교사로 섬기는 처음 몇 년 동안은 만족도가 감소하고 그 후에 새 문화에 적응하고 나서는 만족도가 증가할 것이라고 그들은 예상했다.

1982년부터 2003년 사이에 그들은 28 부부들에게 결혼 만족도 조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MSI])를 세 차례—(1)선교사 지원 기간동안, (2) 첫 4년 임기를 마칠 무렵, (3) 두 번째 4년 임기를 마칠 무렵—에 걸쳐 완성해 달라고 요청했다. 처음 시작할 때 선교사들의 나이는 23세에서 42세였고 결혼 1년차에서 16년차까지 있었다.

로식(Rosik)과 팬직(Pandzic)이 예상한대로 첫 임기 동안에는 만족도가 감소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두 번째 임기 중에도 만족도가 상승하지는 않았다. 나이나 자녀의 수에 따른 차이도 없었다. 20 대, 30 대, 40 대 선교사들 모두 첫 번째 임기 동안에 결혼생활에 더 불만족하게 되었고 두 번째 임기 때에도 더 만족하게 되지는 않았다(“Marital satisfaction among Christian missionaries: A Longitudinal analysis from candidacy to second furlough 기독교 선교사들의 결혼 만족도: 지망생 때부터 두번째 임기를 마칠 때까지의 장기간에 걸친 분석,”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심리학과 기독교 저널*, 2008, 27 권, pp. 3-15).

둘째로, 스티븐 스윗만(Stephen Sweatman)도 첫 번째 임기동안의 선교사들을 상대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는 결혼 만족도와 심리적 증상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사했다. 그도 역시 MSI 를 사용해서 만족도를 조사했다. 그에 더하여 그는 불안장애와 우울증을 측정하는 항목도 사용했다. 그는 34 부부에게 설문조사를 했고 우울증과 결혼 만족도 사이에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우울증이 심각할수록 불만족도 높았던 것이다(“Marital satisfaction, cross-cultural adjustment stress, and the psychological sequelae 결혼 만족도, 타문화 적응 스트레스, 그리고 그 심리적 후유증, *심리학과 기독교 저널*,” *Journal of Psychology and Christianity 심리학과 기독교 저널*, 1999, 27 권, pp 154-162).

이 두 연구는 결혼 만족도의 수준이 사역의 햇수나 우울증과 같은 다른 변수와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두 연구 다 선교사들을 상대로 행해졌고 결혼 만족도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 제기된다. 선교사가 아닌 사람들에게서도 만족도에 있어서 비슷한 감소를 발견하는가? 결혼 만족도에 있어 이런 변화들은 인생 만족도에 있어서도 역시 비슷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가?

세속 연구에서 무엇을 발견했을까? What has secular research found?

다행스럽게도 이 질문들은 다른 연구에 의해 답이 되었다. 보이드 롤린스(Boyd Rollins)와 해럴드 펠드만(Harald Feldman)은 1960 년대에 살던 사람들의 가족 인생 주기에 대한 결혼 만족도를 조사했다. 그들은 인생 주기의 단계를 어른의 나이 대신 그들 자녀의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1. 무자녀
2. 첫 째가 0-2 세
3. 첫 째가 3-5 세
4. 첫 째가 6-12 세
5. 첫 째가 13-21 세
6. 첫 째가 떠날 때부터 막내가 떠날 때까지
7. 빈둥지 때부터 은퇴할 때까지
8. 은퇴부터 본 배우자의 사망까지

롤린스(Rollins)와 펠드만(Feldman)은 뉴욕주 시라큐즈(Syracuse, NY)에 사는 각기 다른 단계에 있는 852 미국인 부부들에게 현재 그들의 인생 주기의 단계에 대해 얼마나 만족스러운가를 물었다. 그들은 남편과 아내 모두가 1 단계(무자녀) 동안의 결혼생활에 대해서는 대부분 만족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4 단계(첫째가 6-12 세)까지 만족도가 감소하다가 마침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은퇴한 후에는 1 단계의 만족도까지 올라갔다.

다행히도 그들은 또 사람들에게 현재 인생 단계가 결혼 생활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매우 만족스러운지” 물었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은 1 단계와 2 단계(무자녀 또는 첫째가 2 살 이하)에서 남편과 아내의 70%가 “매우 만족스럽다고” 답했음을 발견했다. 이후 만족도는 꾸준히 감소해서 6 단계(자녀들이 떠날 때)에서는 단지 10%의 사람들만 “매우 만족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비율은 7 단계(빈둥지)에서 두 배가 되고, 8 단계(은퇴로부터 배우자의 죽음까지)에서 다시 70% 정도까지 올라갔다.



이와 같이, 인생 만족도에 있어서 비슷한 변화가 선교사가 아닌 사람들에게서도 선교사와 같은 나이 대에 일어나고 결혼 만족도 변화도 인생 만족도 변화와 병행해서 나타난다. 한가지 질문이 남는데, 그것은 이런 불만족의 변화가 미국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문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나는지이다.

이 질문은 최근에 답을 얻었는데 프린스턴 대학교의 하네스 슈완트(Hannes Schwandt)가 2013 년 한 해 동안 독일에서 인생 만족도에 대한 연구, 즉 유럽사람들을 상대로 하여 조사를 했던 것이다. 그는 17 세부터 85 세 사이의 독일인들에게 그들의 인생 만족도를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은 23 세이고 가장 낮은 만족도를 보인 것은 55 세, 다시 69 세에 최고조의 만족도에 달한다는 사실을 슈완트는 알아냈다. 그의 연구는 런던경제대학 내 경제활동센터(Center for Economic Performance at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에 의해 <http://cep.lse.ac.uk/pubs/download/dp1229.pdf> 에 출판되었다.

그렇게 서구 문화 사람들은 인생 속에서 그들이 선교사이건 아니건 깊은 불만족의 시간을 경험한다. 로식과 팬직(Rosik and Pandzic)의 연구 대상이었던 선교사들은 모두 만족도가 떨어지는 기간의 나이대에 들어 있기 때문에 모든 연령대에서 그들의 첫 번째 임기동안 불만족이 증가한다고 답했던 것이다.

셰익스피어의 희곡 『리처드 3 세 *Richard III*』의 처음 몇 마디를 빌리자면 삶의 중간에 사람들이 인생의 만족을 경험할 수 없는 “불만족의 겨울(winter of discontent)”이 있는 듯하다.

이러한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What are the implications?

선교사들이 다른 나라에서 섬기면서 때때로 그들의 삶의 만족도가 점점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문제가 그들에게만 일어나는 문제라거나, 그들의 선교사역의 결과라고 결론지을 수도 있다. 물론 만족도 감소의 어떤 부분은 그들만의 문제일 수도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자녀들을 갖기 전인 20 대 초반부터 막내가 집을 떠나는 50 대 중반까지 삶의 불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선교사역을 포기하면 안된다. 최소한 만족도 감소의 일부분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의기소침해지거나 그만두게 되는 일은 줄어들 것이다. 그 힘든 몇 년을 슬퍼만 하며 주의 일을 안하며 지내는 것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편이 훨씬 낫다.

만족을 위한 희망은 존재하는가? Is there any hope for satisfaction?

인생의 일곱 번째 단계는 빈둥지를 언급한다. 그리고 그 때에는 이런 것이 빈둥지 중후군(the empty nest syndrome)인가 생각하게 하는 슬픔과 외로움의 감정을 느끼게 된다. 막내 자녀가 집을 떠나고 나서 어떤 부모들은 우울증, 목적상실, 불안 증세를 호소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위한 시간, 더불어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로움과 시간의 잇점을 발견하게 된다. 롤린스(Rollins)와 펠드만(Feldman)은 빈둥지 기간 동안 그들의 삶이 “매우 만족스럽다”는 것을 발견할 가능성이 두 배나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욱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퇴한 후 삶에 불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8 단계 동안 70% 정도의 사람들이 은퇴의 삶이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20 대에 느꼈던 만족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로버트 브라우닝(Robert Browning)은 “랍비 벤 에스라 *Rabbi Ben Ezra*”라는 시에서 이것을 잘 표현했다:

나와 함께 나이 들어 가자!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인생의 첫 부분은 인생의 마지막을 위해 지어진 것
우리의 때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어
“전부를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셨지
젊은 날은 반쪽일 뿐; 하나님을 믿어; 두려워하지 말고, 전부를 보자!”

†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